

‘경관’과 ‘기호’ 표상을 활용한 지역 학습

- 수도권을 사례로 -

박승규* · 심광택**

Regional Learning utilizing ‘Landscape’ and ‘Semiotic’ Representations

- A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

Seung-Kyu Park* · Kwang-Taek Sim**

요약 : 이 논문은 ‘경관’과 ‘기호’ 표상에 근거한 지역학습의 실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경관’과 ‘기호’ 표상은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구성된 지역적인 담론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지역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오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된 지역담론은 각각의 시대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한 층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역 담론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학습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경관’과 ‘기호’ 표상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습자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지역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경관, 기호표상, 지역담론, 생활세계, 지역경제성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practical implications in regional studies in geography education founded on ‘landscape’ and ‘semiotic’ representations. We suggest that ‘landscape’ and ‘semiotic’ representations, concrete modes of regional discourses that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region through those longwhile history, are useful for enhancing regional identity. The regional discourses - have been constructed through longwhile history in a region - have manifold layers in accordance with each time-spatial context. And our two concepts can be employed as the core indices in regional learning due to their utilities in the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es of a region as well as the past and the contemporary aspects in the region. In addition, because ‘landscape’ and ‘semiotic’ representations are the very elements to constitute the life world of the inhabitants in each region, our dream. The regional learning without estrangement from the learner’s real life is possible, practicable and feasible.

Key words : landscape, semiotic representation, regional discourse, life world, regional identity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교육은 교과를 통해서 그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며, 교과는 교육내용의 성격에 의해 특성이 규정된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교육 내용은 그 이후에 전개될 교육의 방향과 결과들을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무엇

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교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내용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교과 내용 선정을 위한 기준이 주로 국가나 사회, 또는 교과전문가들의 요구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목표모형이 우선시되었던 것은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N.U.E.)

** 분당중앙고등학교 교사(Teacher, Chungang Highschool in Pundang)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학습자들은 늘 수동적인 존재로서 국가나 사회, 그리고 교과전문가들에 의해 선정된 교과 내용들을 밖으로부터 이식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 기초해서 최근 들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의 구성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²⁾ 학습자 중심의 교과 내용 설정은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의 양식들을 다양한 요소들로 번역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함으로써 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리 교육 특히 지역 학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지리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체성 향상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생활세계에 기초한 교육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학습자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세계가 장소나 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단순한 '사실(fact)'의 학습에서 벗어나 '의미(meaning)'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학습자들의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공간이나 장소는 곧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어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의 점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어느 일정한 장소를 공동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학습자들에게 이식된 과거나 현재의 삶의 경험에 기초한 교육내용이기보다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삶속에서 경험한 또는 경험하고 있는 내용요소들을 중심으로 지역학습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지역 학습에 있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의 구성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scope와 sequence의 문제이다. 즉, 어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scope의 문제는 지리교육의 모학문으로서 지리학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지리 교육을 담당하는 학자들에 의해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로 모학문으로서 지리

학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여 교육 내용의 선정범위(scope)를 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경험 세계에 기초한 교육 내용의 구성은 지역지리학을 새롭게 구성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에서 찾을 수 있다.³⁾

지역지리학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기존의 지역지리학이 갖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지역 연구가 총체적 관련성 속에서 지역을 고찰하기보다는 대부분 임의적으로 구분된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둘째는, 지표현상의 기술 또는 특성 규명에 치우친 나머지 이들의 발생을 조건지우는 구조의 차원을 무시했고, 셋째는, 때로 지표면의 현상 기술을 우선함으로써 주체로서의 인간이 배제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넷째는, 이분법적인 지역지리학의 정의 속에서 공간 과학과 대립되는 지역지리학은 양자 간을 통합하지 못하고 지리학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최병두, 1994). 즉, 기능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지역 현상 기술에 치우친 나머지 구조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공간적 재구조화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장소의 의미 파악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등장은 '기본적인 것으로의 복귀'를 주창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의 복고적 운동에 대한 비판과 논리실증주의적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지역지리학이 공간구조의 사회적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이같은 관점은 Cosgrove(1984)의 최근 연구에서 지역지리학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접근법의 예에서 잘 엿볼 수가 있다. Cosgrove의 연구는 경관 해석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였다기 보다는 기존의 경관 이론 속에 구축되어 있었던 이론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평가하고,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⁴⁾

그러나 이처럼 지역지리학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특성들간의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후퇴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경험적인 설명과 추상적인 이론들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양자가 화해할 수 있

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자 하였다.

완성품으로서의 기존의 지역지리학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발명품으로서의 지역지리학에 대한 추구는 예전의 자료들이나 전거들에 의존할 수가 없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부족을 한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자신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증거를 창조해야 했고,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지리학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인 실험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같은 새로운 지역지리학의 이념에 기초한 지역 학습의 실체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로운 발명품으로서의 지역 학습은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속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의 양식들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즉, 학습자들의 생활 세계를 구성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 세계와 공유될 수 있는 경험 세계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며,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장소나 지역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역 및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지역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관’과 ‘기호’ 표상으로 본 지역

각 지역 사람들의 경험의 집진물로서의 ‘경관(landscape)’이나 ‘기호적인(semiotic)’ 표상들은 지역의 정체성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 학습의 요소가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각각의 지역들은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저마다의 지역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경관과 기호표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두가지의 개념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의 총체로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관’과 ‘기호’ 표상은 오랜 역사적인 과정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산과 소멸을 거듭하고 있는 요소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을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학습자들의 생활·세계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이 같은 물질문명들과 기호적인 표상들은 곧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지역을 바라보는 각각의 시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된 지역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경관’은 지역과 장소의 특성을 설명함에 있어 지역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경관’은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세계의 표상이며, 무채색의 지역을 하나의 의미체인 장소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의 장소를 점유하고 있는 물질문명으로서의 경관은 각각의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인간들의 다양한 사고와 신념, 가치체계 등이 반영되어 있는 한 권의 텍스트로서 두꺼운 ‘의미의 지층(strata of mean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소가 지니고 있는 장소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 때 경관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의 이해와는 달리 표피적인 수준에서의 ‘얇은 기술(thin description)’이 아닌 ‘두꺼운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해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존적인 존재로서 인간들이 어떠한 장소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간들이 점유하고 있는 장소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일상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노두(outcrop) 가운데 하나가 ‘경관(landscape)’인 것이다(Relph, E., 1976).

이 같은 경관에 대한 관점은 교육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과교육 속에서 교과가 담아야 할 내용은 학생 스스로가 경험한 것에 기초해야 하며, 학습자의 일상적인 언어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다양한 영역속에서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지역학습에 있어 학습자를 지역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 Vandenberg의 견해는 지역 학습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김채영, 1988).

Vandenberg는 학습자가 사물의 이름을 학습함으로써 세계와 자기 자신과의 간격을 두기 이전에 가시적으로 먼저 접하는 세계가 바로 경관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고 있는 세계 또한 경관 구성의 한 요소라고

보았다. 그는 경관과 연결되는 또다른 하나의 세계로서 '지리(geography)'를 들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요소는 인간 의식이 작용하는 세계이고, '경관'과 '지리'의 심화 확대된 세계가 학습자의 세계라고 보고 있다.⁵⁾ 즉 그에게 있어 학습자는 '세계 내 존재(being in the world)'인 동시에 '경관 내 존재(being in the landscape)'인 셈이다(Norberg-Schulz, C., 1971). 따라서 그는 학교 교육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학습자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지리보다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관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리로 연결되고, 심화·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고 있는 생활 세계가 교육 내용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이 때 학습자의 생활 세계를 존중하면서 교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경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학습자의 삶과 유리된 객체로서의 '경관'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관'은 학습자만의 경관이 아닌 그 지역에 거주하였던,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경험의 총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경관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생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학습자는 교육 내용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하게 되며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학습자의 생활 세계를 구성하는 가시적인 요소로서 '경관'이 중요하다면, 일상적인 생활 세계 속에서의 의사 소통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기호적인(semiotic)' 표상 체계이다. 다양한 기호 현상(semiosis)은 하나의 기호를 매개체로 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 현상들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오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인간들의 경험과 의미가 결집되는 의미 형성 과정인 것이다(Lemke, J. L., 1997). 나아가 각 지역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역사 그 자체로서,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성이나 장소성의 파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Vygotsky는 그의 사회문화적인 심리학 속에서

개인들의 정신 기능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환경이며, 이 때 서로 간의 의사 소통이나 활동을 매개하는 요소로서 기호나 언어 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Wertsch, J. V., 1990). 개개인이 어떠한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환경 속에 자리잡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들의 고등정신기능은 서로 다른 발달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간 활동의 매개체로서 언어, 기호, 상징 등의 요소들을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기호나 언어 등이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동일한 사회문화적인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되고 있는 것이므로 언어나 기호에 대한 이해가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의미 체계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학습자의 발달은 곧 자신들이 생활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학습자들의 지역학습에 있어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나 기호 등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언어나 기호가 아니라 맥락화되어 있는 기호나 언어는 그 지역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의 총체적인 경험과도 관련을 맺고 있어 사실적이고, 나열적인 지역학습에서 벗어나 의미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습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경관이 주로 가시적으로 익숙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호적인 요소들은 생활 세계 속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교육 내용으로부터 소외되었던 학습자들을 교육 내용의 중심으로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기호표상의 하나의 예로서 수많은 지명과 거리 이름의 생성과 사라짐은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권력 집단이 누구인가에 따라 곳곳의 지명들은 바뀌게 되고, 사용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기호로서의 지명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게 되며, 인젠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활 세계속으로 파고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오면서 일제시대에 없어졌던 거리의 이름을 새롭게 고치고자 하는 노력들도 결국은 잃어버렸던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거리 이름을 새로이 짓는 이유는 바로 기호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실어나르는 의미의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최근들어 각 지역의 문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기호적인 표상들에 대한 재현 움직임은 잃어버린 장소의 의미를 기호적으로라도 복원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지역학습의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지역 학습 내용의 구성 논리를 바탕으로 지역 학습의 실체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국토 공간상에서 쇠퇴의 산실로서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내 공간 조직의 재편성과 더불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주거 지역의 확산과 산업체의 입지 변화는 수도권 지역 환경의 변동을 수반하여 환경 문제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지역의 변동은 수도권 지역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논리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도권을 사례로 한 지역학습의 경우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법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의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공간 속에 투영되어져 있으며, 변동하는 현상들에 대한 인간의 기호화는 결국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해 가는 오늘날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에 ‘경관’과 ‘기호’ 표상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경제 공간, 사회 공간, 문화 공간적 변동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지역성(장소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내용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도시 문제’를 학습주제로 설정하였으며, 3개의 공간적 스케일(수도권, 이천시, 분당구)로 구분하고, 이들의 경제 공간, 사회 공간, 문화 공간적 변동을 파악하였다.

수업 모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면 수업 이론을 단순화시켜, 실제 수업으로 제한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관’과 ‘기호’ 표상에 근거한 수도권 지역 학습 방법이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분당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연구(97년 6월 12일 성남시 협동 장학 수업, 수업자: 심광택)를 하였으며, 수업에 대한 참관자(교사 42명) 및 학습자(학생 44명)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실험 수업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는 집단간 반응(설문 항목) 평균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맨-윌트니 U검증(Mann-Whitney U-test)¹⁾을 이용했다. 또한 실험 수업에 대한 평가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설문 항목을 찾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²⁾을 이용했다.

‘경관’과 ‘기호’ 표상을 수업단위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역시 이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이론적인 성격이 강한 본 연구를 통해서 보다 활발한 지역 학습을 위한 토론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학습을 위한 접근법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수업 연구

교과를 구성하는 다양한 논리 가운데 우리들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 복잡하고 산만한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를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학습요소로서 ‘경관’과 ‘기호’ 표상을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을 스케일에 따라 세가지의 사례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수도권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심장소로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장소로 이용되어진 곳으로 두꺼운 역사적 지층을 갖고 있다. 물론 점유 주체에

따라 각각의 지층이 갖는 성격은 다양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수도권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점유 주체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의식을 반영한 경관들로 점유공간을 채색하였으며, 또한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속에서 그와같은 경관들을 지칭하는 기호적인 표현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의 이 지역을 있게 한 다양한 역사적인 층위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의 층위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두꺼운 지층 모두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며 잘못하면 그 지역의 성격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꺼운 층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례수업에서는 수도권의 특성과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수도권지역 전체에 대한 기호적인 표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발적인 인구변화

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지역의 두꺼운 지층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천시, 경관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예로 분당 신도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였다. 수도권의 층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각각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경관'과 '기호' 표상들을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수도권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우선적으로 '경기(京畿)'도라는 지명과 '수도권(首都圈)'이라는 지명이 갖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이 지역의 역사적인 층위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역사적인 지층이 두꺼운 '이천' 지역을 사례로 남한강 수운의 발달과 쇠퇴,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철도의 건설과 신작로의 건설 등 교통로의 변화를 경관상으로 보여 주면서 이천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형성된 신도시인 분당(盆唐)지역을 대상으로는 신도시로 개발되기 이전의 탄천(炭川) 주변의 모습과 개발된 이후의 분당의 모습에서 분당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표 1 본시 수업 내용 및 수업 방법

공간 스케일	수업 내용	수업 자료	수업 방법
수도권	수도권의 역사적 층위	자료 1 - 수도권 인구 증감 통계 자료, 수도권 행정 구역도	문제 해결 중심 (통계지도 및 slide사진 활용)
이천시	이천 사회의 지역성	자료 2 - 이천 지역사회의 slide사진	개념 탐구 중심 (지리부도 및 slide사진 활용)
분당구	분당 신도시 환경	자료 3 - 분당 신도시 건설의 배경 자료 4 - 분당 신도시의 역사지리	의사 결정 중심 (읽기 자료 및 slide 사진 활용)

표 2 본시 수업 목표의 분류

수업 목표 - 수도권의 지역구조와 그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지식 목표 - 급격한 인구 증가는 주민 생활 환경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해 목표 - 이천 지역 사회는 교통로가 변천하고, 경제 활동 기반이 분화하여 발전 축의 방향이 전환되고 장소성이 변동하고 있다
태도 목표 - 제2의 고향인 분당의 역사적인 층위를 알고, 고향을 소중하게 가꾸어 나아가다
기능 목표 - 통계자료, 읽기자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slide사진을 분석하여 지역 변동을 추론한다. ※ 사례지역 : 수도권, 이천시, 분당신도시

표 3 본시 수업안

단계	학습 내용	교사의 문제 제기 및 제시	학생의 학습 활동	예상되는 발언 및 사고	지도상 유의점
학습 문제 설정	도시화와 도시 문제	<p>*경기(京畿)도라는 지명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p> <p>*수도권(首都圈)이라는 지명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p> <p>*영조 35년(1759)에 경기도 지역은 전국 인구의 8%를, 1995년에 수도권 지역은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집중의 원인과 최근에 와서 수도권의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배경을 생각해 보자.</p>	<p>*'京'은 왕도를 가리키고, '畿'는 천자에게 직접 예속되어 있는 사방 1,000리의 땅을 의미하지만, 고려 현종(1018년) 때에는 개성 주변의 십여개의 현을 일컫었으며, 세종 때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비슷한 범위의 지역으로 확대되어 사용되었다.</p> <p>*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의 기본구상에서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권역 설정을 하는데 수도권은 8중권 가운데 하나의 권역이다.</p> <p>*농업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인구부양력의 증대, 유통경제의 발달, 구매력 향상, 장시의 발달.</p> <p>*수도권에서 주거지역의 확산과 산업체 입지변화는 이 지역환경의 변화를 더욱 크게하여 수도권 환경문제를 심화시켰다.</p>	<p>*수도권 지역이 지나는 역사적인 층위를 설명하기 위한 노두로서 지명을 활용한다.</p>	
자료 비교 및 변환	자료 1을 이용하여 그림 작성	<p>*수도권 지역의 인구증감도를 그려 보고, 서남부로 인구가동을 자극하는 요인을 생각해 보자.</p>	<p>*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계급구분도를 그려 본다.</p>	<p>*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된 1991년 이후 서울의 인구가 연평균 0.2% 감소한 반면에, 경기도는 연평균 4.64% 증가율을 나타낸다(위성도시 인구집중)</p> <p>*동부는 자연보전 권역이며, 성장관리 권역 및 과밀억제 권역의 주거 및 제조업, 무역, 정보 기능으로 인구집중.</p>	<p>*자료 1 - 수도권 인구증감, 통계, 수도권 행정구역도 제시</p>
자료 분석	사례 지역 (수도권)	<p>*몽촌토성의 위치와 축조 시기는?</p> <p>*4대문안 도심 지역의 지형형성 과정?</p> <p>*하남시 망월동 근교 농업의 형태?</p> <p>*인천시 북성동일대 중국식, 일본식 건물과 상권침탈 경쟁?</p> <p>*인천에 수문식 도크를 건설한 배경?</p>	<p>*slide 경관의 다양한 의미를 파악한다</p>	<p>*한강하류(올림픽 경기장) 주변, 백제시대(외벽 주변에 해자, 목책 2m이상).</p> <p>*북동-남서 방향의 단층선과 소규모 단층열들이 교차하는 지역에 나타나는 화강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 침식 분지상 도시 발달</p> <p>*점업(채소 3~4회/1년, 상추, 배추, 오이, 화훼 등), 논→밭으로 토지이용 전환, 임차농 비중이 높고, 노동력 수급 불안.</p> <p>*개항초 외국상인은 활동범위가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 1880년대 개항장 100리까지 확대, 중국인, 일본인 조래지구상인간 상권침탈 경쟁.</p> <p>*조차가 크다. 수위 10m 동시에 40여척(만톤급, 5만톤급)←무역량 증가.</p>	<p>*slide사진 활용 (20분)</p>

단계	학습 내용	교사의 문제 제기 및 제시	학생의 학습활동	예상되는 발언 및 사고	지도상 유의점
자료 분석 및 종합	<p>사례 지역 (이천시)</p>	<p>*과거에 이포나루를 통해 하루 100회 이상 어떠한 물자들이 운반되었을까?</p> <p>*남한강 수운이 쇠퇴한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p> <p>*중부고속국도와 영동고속국도의 개통 및 이포대교의 건설로 이천지역사회의 발전축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었을까?</p> <p>*이천 도자기 공업의 형태?</p> <p>*1980년 이후 이천과 그 주변의 부발읍, 대월면 등에 인구가 급증한 이유는?</p> <p>*걸국 이천 지역 사회를 변동시킨 원인은 무엇일까?</p>	<p>*slide사진(이포 나루)을 보고 생각해 본다.</p> <p>*지리부도를 보고 이포나루가 쇠퇴한 원인을 생각해 본다.</p> <p>*산업입지 조건의 변화와 인구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p> <p>*slide사진을 보고 생각해 본다.</p> <p>*토지 이용 변화와 관련하여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다</p> <p>*4명씩 조별로 토론해 본다.</p>	<p>*곡물, 직물, 소금 등이 운반되었다. *5일장(5, 10일) 소멸, 이포대교 건설로 현재는 위락시설 입지</p> <p>*일제시대의 길도 및 신작로 건설, 근대 교통기관의 도입, 상류지역의 침략남벌로 인한 토양침식과 토사퇴적에 따른 하상이 심증.</p> <p>*산업입지 조건으로서의 교통의 중요성. 중부고속국도와 영동고속국도의 교차로 인해 이천 지역사회의 발전 축이 전환되었다. 이천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였을 것이다.</p> <p>*광주군 분원리에서 전파, 자석으로 철분 제거, 수도권에 공공기능과 관련, 최근에는 기스로, 전기로 사용</p> <p>*토지 이용 변화(시가지, 인삼밭, 과수원, 능경지, 공업용지, 아파트, 목초지) 공업화(음식료품, 전자 산업입지)</p> <p>*경제 활동 기반의 분화 및 교통로 변화</p>	<p>*이천지역이 지나는 역사적인 층위를 설명하기 위한 노두로서 교통로의 변천을 살펴 본다.</p> <p>*자료 2 -이천 지역 사회의 slide 사진 활용(15분)</p>
개념적 지식 및 해석적 지식 파악	<p>자료 분석 및 종합한 내용을 근거로 개념적 지식 및 해석적 지식을 정리</p>	<p>*도시(수도권)문제는 예 생기는 것일까?</p> <p>*최근 이천시내와 그 주변지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p>	<p>*수도권과 이천시 지역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다.</p>	<p>*도시(수도권)환경문제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생활 환경의 질을 떨어뜨린다.</p> <p>*교통로의 발달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이천 및 그 주변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함에 따라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다.</p>	

단계	학습 내용	교사의 문제 제기 및 제시	학생의 학습활동	예상되는 발언 및 사고	지도상 유의점
문제 제시	사례 지역(분당 신도시)경관을 통한 역사적 층위 파악	*성남지역에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고, 171기의 고인들이 존재하고, 무문토기가 출토된 점을 미루어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추론하면? *한산이씨 종가택 및 묘역은 조선 중기 이후 분당의 생활상을 추론하면? *신도시 건설 이전의 분당 사진과 오늘날 분당 사진을 비교해 보자.	*중앙공원에 보존된 고인돌 경관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말한다. *슬라이드 사진을 보고 생각해 본다. *신도시 건설 이전 분당에 살던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문을 발표한다.	*청동기시대에 상당한 규모의 인구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주거지는 점차로 한강변에서부터 내륙의 구릉지에 이르는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당시 지배층의 정치 세력과 경제력을 반영하며, 생산 증가에 따른 잉여 생산물의 축적과 사회적 소유로 빈부의 차와 계급 분화가 촉진되었을 것이다. *고려말 목은 이색의 6대손인 토정 이지함의 조부 이장윤의 묘. 과거 400년 이상 한산이씨 동족촌 형성. *탄천 주변의 층적지(점토층, 모래층, 시갈층 순으로 퇴적됨)에서는 관개농업이 행해짐. 산지 주변의 밭농사, 근교농업.	*slide사진 및 실물 화상기 활용
토론 및 실제	지명의 의미 파악을 위한 소집단별 토론	*탄천(炭川)이란 지명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분당(盆唐)이란 지명은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을까?	*자료 3과 4를 분석하여 토론 발표한다. *분당 신도시 건설의 배경을 수도권 인구집중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	*원래 이 지역은 서울과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나뭇배를 이용하여 서울에 숯을 만들어 공급하여 숯골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80년대 3저(저달라, 저유가, 저금리)현상→수출초과→통화량 증가→부동산, 주식값 급등→임대보증금 급등→사회문제→임대차 보호법 제정→주택 200만 호 건설. *분점리(용기점)와 당우리(당점 모퉁이)를 합쳐서 1989년 분당 지구 사업 개발소를 설치하고 주택입지에 적합한 침식지, 저기복 구릉지, 탄천 주변 층적지를 택지로 개발함.	*자료 3 -분당 신도시 건설의 배경 *자료 4 -분당 신도시의 역사지리 *읽기자료 및 slide사진활용 (15분)
결과 예측	학생의 의문을 중심으로 개방형 결론 유도 및 정리	*분당 개발 이후 성남시의 공간구조상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최근에 각자 겪고 있는 경험을 말한다.	지역주민들의 자생적인 공간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여 성남 구시가지와 기능적 보완 관계가 소홀하고 분당신도시 자체의 기반활동 등을 정착시키지 못함. *판교일대를 개발하여 3핵 시가지 형성된다면 성남시 자체의 도시기능을 보완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	

5. 실험 수업에 대한 결과 분석

실험 수업은 고등학교 한국 지리 내용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변화'를 주제로 하여, 3개의 공간적 스케일(수도권, 인천시, 분당구)을 대상으로 관련 단원을 통합(Ⅲ.생활 공간의 변화-(5)도시화와 도시 문제, V.국토 개발과 환경 보전-(1)환경 문제, VI.각 지역의 생활-1.서울-인천 지역)하여 경제 공간, 사회 공간, 문화 공간적 변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관'과 '기호' 표상에 근거한 수도권 지역 학습이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다. 실험 수업 대상은 분당 중앙고 1학년 학생으로 97년 6월 12일 성남시 협동 장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실험 수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참관자(성남 시내 25개 고등학교 지리 교사 및 교감 50명 중 42부 회수)와 학습자(분당 중앙고 1-2반 학생 52명 중 44부 회수)의 반응을 수업 연구 직후에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Q1-수업의 흥미도, Q2-발문의 난이도, Q3-논리적 사고력의 발달, Q4-수업 내용의 이해도, Q5-지역 변동의 종합적 분석, Q6-주민과 제도 간의 관련성 파악, Q7-공감하는 인간관계, Q8-정보처리 활용능력, Q9-경관 및 주민이해, Q10-입시 지도에의 적용 가능성, Q11-수업 목표의 달성도, Q12-수업 개선의 가능성, Q13-수업의 장점, Q14-수업의 단점이며, 이같은 설문항목을

통해 '경관'과 '기호' 표상에 근거한 지역 학습 방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참관자와 학습자 두 집단의 평균 점수 차이가 의미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Mann-Whitney U-test를 했으며, Likert식 5단계 척도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4단계 척도로 변형시켜 수업 반응에 대한 응답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물론 이같은 분석 방법의 한계는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서의 논의들이 주로 학습자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형태의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분석방법으로의 분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사전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검사만으로 수업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협동장학의 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참관자와 학습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질적분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며, 참관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검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 직후의 수업반응 기록만으로 분석을 대신하였다. 그 이유는 수업자와 학습자간에 수업을 대하는 관점이 일치할 때 더욱 의미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수업자와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실험 수업을 평가한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에서

표 4 실험 수업에 대한 참관자, 학습자 반응 차이(4단계 척도 사용)

평가 항목	평가 점수의 평균		U값	2-Tailed Prob.	유의확률 P<0.05:**	0.05≤P <0.1.*
	참관자 (인원수)	학습자 (인원수)				
1. 수업의 흥미도	3.29(42)	2.98(44)	718.5	0.0470	**	
2. 발문의 난이도	3.07(42)	2.64(44)	656.0	0.0133	**	
3. 논리적 사고력 발달	3.05(42)	2.80(44)	762.0	0.1124		
4. 수업내용의 이해도	2.81(42)	2.93(44)	838.0	0.4263		
5. 지역변동의 종합 분석	2.79(42)	2.59(44)	778.0	0.1671		
6. 주민과 제도간의 관련	2.40(42)	2.43(44)	897.5	0.8042		
7. 공감하는 인간관계	2.86(42)	2.93(44)	829.5	0.3728		
8. 정보처리 활용능력	2.95(42)	2.80(44)	839.0	0.4329		
9. 경관 및 타인 이해	2.62(42)	2.25(44)	663.5	0.0146	**	
10. 입시지도 적용 가능성	3.05(42)	3.11(44)	875.0	0.6384		
11. 수업목표 달성도	2.69(42)	2.41(44)	720.5	0.0519		*
12. 수업개선 가능성	2.93(42)	2.93(44)	905.0	0.8590		

Q1(수업의 흥미도), Q2(발문의 난이도) Q9(경관 및 타인 이해), Q11(수업 목표 달성도)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바꾸어 말하면, 교사들은 실험 수업을 학생들보다 더욱 신선하게 받아들이며, 수업자의 발문에 대해서도 쉽게 느끼고 있으며, ‘경관’과 ‘기호’ 표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학습이 수업 분석 결과에서 취약한 부분으로 드러난 경관 및 타인 이해. 그리고 수업 목표에 더욱 명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실험수업이 끝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조사되어야 할 항목인 논리적 사고력의 발달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참조).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의 수업 인식의 방법과 논리에 개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수업 방법의 변화를 바라면서도 공개 수업에 노출되면 당황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분당중앙고 학생들의 개인차 이틀데면, 지리 교과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 수업 내용 이해 속도, 긴장하여 평소와는 다른 반응, 실험 수업이 주는 이미지에 대한 거부 반응 등에 의해 참관자(교사)들의 반응보다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험 수업의 장점으로 참관자, 학습자 모두가 내용에 적절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생활경험과 관련시킨 구체적인 사례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한 점,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의욕이 충만하여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집중하는 태도, 학습 방법의 다양성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학습자들은 교과서만으로는 상상의 범위가 좁았었는데 실

험 수업으로 폭넓게 추론할 수 있어 사고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받았으며, 듣는 수업보다는 보면서 학습자가 직접 생각하여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점으로 참관자, 학습자 모두가 개별학습이 어렵다고 보았으나 학습자들은 그 의에도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입시위주 공부가 아니라는 점, 수업이 혼란스럽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보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설문 항목별로 반응한 집단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97SPSS for MS WINDOWS Release 7.5 패키지를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 분석을 하여 실험 수업을 참관한 교사와 실험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설문 항목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내면적 기준을 심리적인 공간으로 나타냈다(표 5와 그림 1 참고).

2차원에서의 설문 항목 좌표(표 5)를 형상화(configuration)한 것이 그림 1의 12개 설문 항목에 대한 2차원 지도이다. 다차원 척도법에 의한 수업 평가에서 차원 1과 2는 수업 평가자(참관자, 학습자)이며, 참관자 반응에서 차원 1과 차원 2에 관계없이 교차점에 가까이 위치한 Q5(지역 변동의 종합적 분석)와 Q7(공감적인 인간관계) 해석은 참관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여기서 다차원 척도법으로 만들어진 지도는 형상만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방향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적절하게 회전하여 해석하면 Q4(수업 내용의 이해도), Q11(수업 목표

표 5. 2차원에서의 설문 항목 좌표

설문항목	차원1(참관자)	차원1(학습자)	차원2(참관자)	차원2(학습자)
a. 수업의 흥미도	-1.0082	0.5742	-1.1889	0.1814
b. 발문의 난이도	-2.3582	-1.2645	1.4662	0.7537
c. 논리적 사고력 발달	-0.4714	0.4875	-0.4555	0.0405
d. 수업내용의 이해도	-0.2235	0.6777	1.6407	-1.5371
e. 지역변동의 종합 분석	0.1449	-0.5246	0.0205	-0.1380
f. 주민과 제도간의 관련	2.1478	-1.8250	1.0770	-0.5460
g. 공감하는 인간관계	0.0691	1.9194	0.0818	1.1687
h. 정보처리 활용능력	0.3986	0.9752	-1.2727	0.7069
i. 경관 및 타인 이해	1.1329	-2.0894	-0.3903	-0.2023
j. 입지도도 적용 가능성	-0.1672	1.1270	-0.7866	-0.2129
k. 수업 목표의 달성도	0.5784	-0.8623	0.4004	0.5439
l. 수업개선의 가능성	-0.2163	0.8048	-0.5925	-0.7589

달성도)은 교차점으로부터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교사(학생) 수준과 학생 수준에서 '경관'과 '기호' 표상을 중심으로 지역학습의 내용을 구성하였을 때 수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수업 목표에 명확하게 도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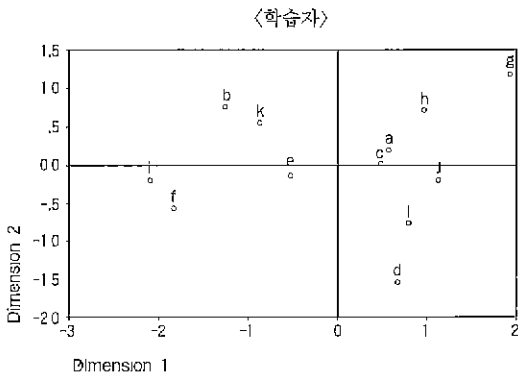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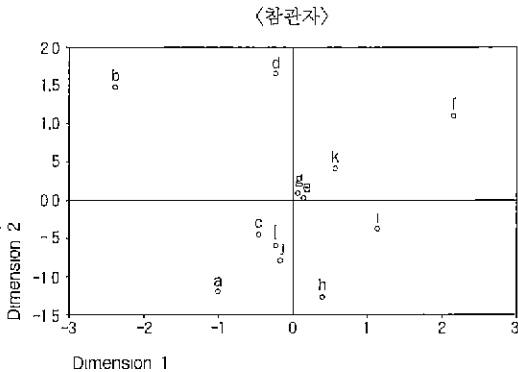


그림 1. 12개 설문 항목의 2차원 지도

6. 맺는말

본 연구는 '경관'과 '기호' 표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학습의 실체를 수도권을 사례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각 지역을 하나의 의미체라고 규정할 때 각각의 지역은 두꺼운 의미의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의미의 지층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경관'과 '기호'는 각각의 의미의 지층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노두라는 점에서 이 두가지 개념을 이용한 지역 학습은 의미가 있다

고 생각된다.

특히 지역 학습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니만큼 외부에서 이식된 지식이나 상징 체계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으로부터 출발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가시적인 공간 점유물로서의 '경관'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담론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호'적인 표상은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인 것이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서의 '경관'이나 '기호' 표상을 중심으로 한 지역학습은 그 동안 지역학습에서 다루어 왔던 자료 이외에 보다 다양한 자료들을 지역학습을 위한 교육내용 요소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의 수업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지역'과 '기호' 표상을 활용한 지역 학습이 수업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수업 목표에 보다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한다고 앞의 수업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관'과 '기호'표상은 서로 다른 역사적인 층위를 대표하는 용어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각 지역의 변화된 모습이나 그를 통한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각각의 의미의 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경관'과 '기호'표상들은 그 자체가 한편의 텍스트이므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번역하여 가르칠 수 있어 학습내용의 sequence구성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관'과 '기호'표상을 활용한 지역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교육의 맥락 속에서 '경관'이나 '기호'표상과 관련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학문의 논리에 의존한 지리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아닌 지리교육이라는 교육의 논리에 기초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새로운 교육내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註

文獻

- 1) 최근에 개발된 제7차 교육과정의 총론에 의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교육과정의 방향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처럼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이다(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각론)개발 지침, 1)
- 2) 교과교육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과가 그 자체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에 대한 천착은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교과를 대하는 사람과의 관련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교과를 구성함에 있어 이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교과교육학의 논의는 교과와 교육이라는 단순한 양축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이론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3) Pudup, M.B., 1988,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2), 378.
- 4)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31.
- 5) Vandenberg, D., 1971. *Being and Education: An Essay in Existential Phenomenology*, NewYork, Prentice-Hall. in 김춘일, 1997. 교육현상학의 기초, 서울, 태학사, 234-236. 여기서 반덴버그가 의미하는 지리는 곧 어린이의 생활세계로서의 장소나 지역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6) Mann-Whitney U-test는 어떤 변인에 대한 측정치가 서열 척도에 의해 얻어졌을 때, 두 개의 독립 표본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느냐의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오택섭, 1991).
- 7) 다차원 평가 척도에서는 일차원 평가 척도에서처럼 평가 대상에 대한 특정 평가 차원을 제시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들 간의 유사성(또는 선호도)을 평가하게 하여 평가자가 대상을 평가하는 데 내재하는 평가 기준을 발견하고, 각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들이 갖는 측정치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체서일, 1991).

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각론) 개발 지침.

김춘일, 1997, 교육현상학의 기초, 태학사.

김치영, 1988, "교육현상학의 동향", 현상학의 전개, 한국현상학회, 양서원.

박승규·김일기, 1998. "사회과 지역학습에서 '지역'의 의미 탐색", 사회과교육연구, 5,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연구회, 71-90.

박승규, 1998, "경관미학의 지리교육적 의미", 교육과학연구, 12, 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 185-204.

심광택, 1997, "지식의 유형에 근거한 지리과 수업 방법의 실제", 대한지리학회지, 32(2), 대한지리학회, 197-215.

오택섭, 1991,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 나남.

최병두, 1994, "새로운 지역지리학을 위하여", 경북지리교육, 5, 경북지리교육연구회, 1-10.

최성욱, 1996, "교과교육학 논의의 반성적 이해와 대안적 접근", 교육이론, 10(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15-146.

체서일, 1991,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법문사.

통계청, 1996.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 보고서 - 1995년 11월 1일 현재.

岩田一彦, 1994. 社會科授業研究の理論, 明治圖書.

宇佐美寛, 1973, 思考指導の論理 - 教育方法における言語主義の批判-, 明治圖書.

森分孝治, 1978. 社會科授業構成の理論と方法, 明治圖書.

Grundy, S., 1987, *Curriculum: product or praxis*, London: The Falmer Press.

Lemke, J. L., 1997, "Cognition, Context, and Learning: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in Krishner, D., & Whitson, J.A., (eds.), *Situated Cognition: Social, Semiotic,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London:LEA Publishers, 39-40

Norberg-Schulz, C., 1971,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Praeger Publishers, Inc., 김광현(역), 1985, 실존·공간·건축, 태림문화사.

Pudup, M. B., 1988, "Arguments with in Regional

-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2), 378.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
Pion Limited.
- Wertsch, J. V., 1990, *Voices of Mind : A Sociocultural
Approach to Mediated Action*,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